대림 2 주일 2012 년 12 월 9 일 (다해)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2 권 50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성체조배: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저녁미사 후)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이규용 요한 (661-619-1081)

| 미사성가 | 입당 () | 봉헌 () | 성체 () | 파견 () |
|---|---|---|---|---|

### ►제 1 독서 바룩 5,1-9

### 화답송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 오리라. ◎

### ►제 2 독서 필리 1,4-6.8-11

###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루카 3,1-6

###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 날짜 | 미사해설 | 독서 | 복사 |
|---|---|---|---|
| 12 월 9 일 | 이 마틸다 | 김 헬레나 |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
| 12 월 16 일 | 이 클라라 | 이 바오로 |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
| 12 월 23 일 | 이 마틸다 | 이 요한 | 성인복사 |
| 12 월 30 일 | 이 클라라 | 김 헬레나 |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

###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 주일미사 | 봉헌금 | 2 차 봉헌 | 교무금 |
|---|---|---|---|
| 12 월 2 일 | $ 410.00 | $ 110.00 | $ 430.00 |

*2 차 봉헌은 매월 첫째, 세째 주일미사에 있습니다.

### 대림 포인세티아 꽃 봉헌

대림시기 제대장식을 위한, 포인세티아 꽃 봉헌을 받습니다.

### 성탄 새해 미사 일정

아기예수 구유경배:12 월 24 일 저녁 6 시
성탄 전야미사: 12 월 24 일 저녁 6 시 30 분
성탄미사: 12 월 25 일 오전 9 시 (한, 영), 오전 11 시(서)
새해미사: 1 월 1 일 오전 9 시(한, 영, 서)

### Gospel Competition: 신약 4 대복음 필사 대회

성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산클레멘테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하는 'Gospel Competition (4 대복음 필사)' 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부사항 문의: 성당사무실(661-871-9190)

### 한인공동체 성당 청소: 매월 다섯번 째 토요일 오후 3 시

## 공 동 체 소 식

### 주일학교: 주일 오전 8 -9 시

어린이 교실이 친교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Ms. Luna) 의 지도 하에, 주일 미사시간 (오전 8-9 시) 동안 성경말씀 찬송 등을 배우며, 영적 성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의: 박 마가렛 (총구역장).

### 대림 피정 및 고백성사: 12/9 (오늘) 오후 3 시 30 분

오늘 오후 3 시 30 분에, LA 교구 성 바실 성당의 박대덕(스테파노) 신부님을 모시고, 대림피정 및 고백성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한인공동체 전체가 다가오는 성탄을 경건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공동체 임원회의: 12/11 (화) 저녁 7 시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12 월 11 일 (화) 저녁에 있습니다.

### 성체조배: 12/13 (목) 저녁 6 시 30 분

성체조배는 매월 둘째 목요일 저녁 6 시 30 분에 있습니다. 12 월 성체조배는 12 월 13 일에 있습니다.

### 어린이성가대 공연: 12/14 (금) 저녁 7 시

연말 어린이 성가대 (Children's Choir)과 전 요하킴 신부님께서 함께 하시는 연말공연이 12 월 14 일 금요일 저녁 7 시에 열립니다. 티켓은 성인은 $10, 17 세이하는 무료입니다.

### 소공동체 모임: 12/16 (주일) 미사 후

12 월 소공동체 모임은 12 월 16 일 오전 8 시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산클레멘터 장학생 선발

산클레멘테 공동체의 학생(High School Seniors for Class of 2013)들을 대상으로 장학생 선발이 있습니다. 선발대상, 지원 서류, 지원 자격 등에 대한 문의는 성당사무실(661-871-9190)로 해 주십시오.

## 말씀의 이삭

### 섭리의 손길

박대성 바오로| 한국화가

은은한 달빛 아래 휘어졌지만, 절개와 품위를 지니고 묵묵하게 서 있는 소나무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지난 세월이 한 폭의 그림이 되어 펼쳐집니다.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는 세 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 한국전쟁의 뒤안길에서 다감했던 아버지를 잃고 왼팔이 잘려나갔던 황망한 네 살 때의 기억이 굵은 선으로 그려집니다. 그 위에 한쪽 팔이 없다고 놀리는 눈길을 피해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냈던 시간도 겹쳐집니다.

바둑을 두는 어른들이 있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 제가 어른들 뒤쪽에서 구경하다 가끔 훈수를 두는 모습. 어느 틈인가 어른들과 앉아 바둑을 두며 칭찬을 받던 모습도 그려집니다. 처음으로 저를 구석에서 사람들 사이로 끌어낸 것은 바둑이었습니다. 바둑판은 어느새 화선지로 변하고 그림을 그리는 열여덟 살의 소년이 청년이 되고 장년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열여덟 이 후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거지에서부터 명망 높은 분들까지 만나게 되었고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기에 어둡지 않은 날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이렇듯 작은 고리를 통해 제가 세상과 분리되지 않도록 묶어두셨습니다.

그런 날들 위에 제 마음을 훈훈하게 덥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머물 방도 없어서 친구가 하는 고아원 방 한칸을 빌려 그림을 그렸던 시절입니다. 고아원을 찾아 왔던 젊은 신부님! 전 그 당시 신부님이 무엇을 하는 분인지도 몰랐던 때입니다. 그 신부님은 다시 저를 찾아와 새로 지은 가톨릭문화원에 거저 화실을 마련해주셨고, 의식주는 당신 사제관에서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지내면서도 제게 천주교에 대한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신부님은 교포사목을 나가게 되었다며, 제게 세례를 받지 않겠느냐고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준 사랑과 배려에 대한 고마움에 어찌해야 할 지 갈등하는 동안, 친하게 지냈던 분들도 자신들도 천주교 신자라며 저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은 저를 당신 가까이 자녀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뭐가 뭔지 잘 알지 못하고 시작했지만, 한번 한 약속이기에 처음에 성당 맨 뒷자리에 조금 늦게 들어갔다가 조금 일찍 나오면서 신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고 약속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사십여 년을 계속한 신자생활을 통해 그 분의 놀라운 섭리를 조금씩 알아 보는 모습들이 떨리는 손으로 그려집니다. 그 위를 어루만지 듯이 사도 바오로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우리의 추천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추천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이 우리의 봉사직으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그것은 먹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으로 새겨지고, 돌 판이 아니라 살로 된 마음이라는 판에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고린 3,2-4)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이 제 온몸을 전율케 합니다. 섭리의 손길은 이렇듯 제 삶에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울러 응답은 오로지 제 몫임도 더 깊이 깨닫습니다.

-서울주보에서-